

뱃길 불안 여전...선박사고 절반 전남서 발생

올 6월 제주행 카페리 녹동항 회항 등 전체 22건 중 11건 원인 80% 고장·부주의...영세 선사 많아 선박 교체 어려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여객선 사고 22건 중 1건은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여객선 사고 원인의 81.8%는 운항 중 부주의와 기관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고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여객선 사고는 모두 22건으로, 절반인 11건이 전남지역에서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37건 중 62.16%인 23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의 80% 이상은 선박 노후화와 운항 중 부주의 때문이었다.

올해 연안여객선 사고 22건 중 9건이 선박 노후화와 관련 있는 기관고장으로 발생했다.
선박 간 충돌 등 운항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9건이나 됐으며 3건은 돌풍 등 기상악화나 원인 미상 사고였다.
지난 6월 8일 고흥군 거금도 북서쪽 1해리(1.85km)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3780t급 카페리 N호가 우현 기관고장으로 고흥 녹동항으로 회항하는 등 전남에서 일어난 11건 중 5건의 사고 원인이 엔진·냉각기 등 기관고장이었다.
정부가 세월호 침사 이후 노후 선박 퇴출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선원 교육도 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선박 유지·관리 점

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선박 안전 규정을 강화해 화재 선 선령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여객선의 약 10%가 당장 내년 7월부터 선령 제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170척의 여객선이 육지와 섬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중 44척이 20년 이상 된 선박이다.
전체 여객선 중 차도선과 카페리, 쾌속 카페리 등 선령 제한이 25년인 화재선은 118척이며 이 중 20%인 24척의 선령이 20년을 넘겼다.
전국 여객선의 절반 이상이 다니는 전남은 여객선 95척 중 27척이 20년이 넘는 것

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선으로 분류된 77척 중 16척의 선령이 20년을 넘었고 이 중 8척은 당장 내년부터 운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인기 노선을 제외하고는 적자에 시달리는 영세 여객선사가 많아 선박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사들은 선령연장검사를 통과해 연장운행을 하거나 신규 또는 선령 15년 이내 중고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데 대한 비용 부담과 대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안에서 20년 넘게 카페리를 이용해 온 주민 서모(62)씨는 “오래돼도 안정적인 배가 있는가 하면 20년 미만이지만 잦은 기관고장이 발생하는 여객선도 있다. 전문 인력을 늘려 평소 선박 상태 점검 및 출항 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선조위 활동 4개월 연장

내일 전원위원회 개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기간 연장, 세월호 선체 직립 등을 논의한다.
선조위는 “20일 오후 2시 목포신항 세월호 선조위 목포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조위는 지난 7월7일부터 시작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조위는 또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증언·진술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숙박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선조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7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세월호 선체 직립’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선체 조사와 보존을 위해 세월호를 직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체를 세우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조위 활동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져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장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수습자들의 완전한 수습과 기관구 조사를 위한 세월호 선체 직립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추억의 총장축제’가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했다. 공연팀이 금남로 부대 행사장에 마련된 ‘추억전시관’ 앞에서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장로서 ‘추억 여행’

총장축제 개막...22일까지 퍼레이드·댄싱나이트 등 다채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추억의 총장축제’가 18일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기존 ‘7080세대’를 콘셉트로 개최된 행사에서 벗어나 ‘8090세대’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세대 공감 영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1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

전당·총장로·금남로·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세대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거리퍼레이드·커뮤니티 아트·추억 전시관·어게인 무대·시네마 파라다이스 등 60개 전시·참여·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눈여겨볼 축제 프로그램은 총장퍼레이드·심야극장·패션 7090·대학가요제 리

턴즈 등이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커뮤니티 아트’는 20일~21일까지 이틀간 지역예술인 20명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 가로 5m·세로 1.5m 크기의 캔버스에 광주의 대표적 산(山)인 무등산의 봄·여름·가을·겨울을 그리는 행사다.
또 19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댄싱나이트’(Dancing 90’s) 행사도 눈길을 끈다. 이 행사에서는 90년대 음악에 맞춰 참가자들이 춤 실력을 겨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2 해질 17:53
달돋이 05:49 달질 17:52

가을옷 같이 입는 산
구름많고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13/23 | 보성 | 구름많음 | 12/21 |
| 목포 | 구름많음 | 14/21 | 순천 | 구름많음 | 14/23 |
| 여수 | 구름많음 | 16/21 | 영광 | 구름많음 | 11/22 |
| 나주 | 구름많음 | 11/23 | 진도 | 구름많음 | 14/21 |
| 완도 | 구름많음 | 15/22 | 진주 | 구름많음 | 11/22 |
| 구례 | 구름많음 | 10/22 | 군산 | 구름많음 | 12/22 |
| 강진 | 구름많음 | 13/23 | 남원 | 구름많음 | 10/21 |
| 해남 | 구름많음 | 12/23 | 속산도 | 구름많음 | 15/19 |
| 장성 | 구름많음 | 11/22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바다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북~북동 | 0.5~1.0 |
| | 면바다 | 북동~동 | 1.0~2.5 | 북~북동 | 1.0~2.0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동~동 | 1.0~2.0 | 북동~동 | 1.0~2.0 |
| | 면바다(동) | 북동~동 | 2.0~3.0 | 북동~동 | 2.0~3.0 |
| | 면바다(서) | 북동~동 | 2.0~4.0 | 북동~동 | 2.0~3.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관심 |
| 자외선 | 보통 |
| 파부질환 | 보통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6:57 | 01:42 |
| 여수 | 19:16 | 14:04 |
| | 02:24 | 08:49 |
| | 14:45 | 20:57 |

◇주간 날씨

| 20(금) | 21(토) | 22(일) | 23(월) | 24(화) | 25(수) | 26(목) |
|-------|-------|-------|-------|-------|-------|-------|
| | | | | | | |
| 12/23 | 11/23 | 11/22 | 12/20 | 10/19 | 9/19 | 9/20 |

정치인 추석 불법광고물 봐주기 논란

광주 5개 구청 1천여장 수거...‘관례’ 이유 과태료 부과 안해

광주시 5개 구청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뒷말을 낳고 있다.
18일 광주의 일선 구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지난주까지 관내 5개 구청에서 수거한 정치인 현수막만 1000여장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난해 나온 덕분에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했지만, 엄연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이다.
그러나 광주 5개 구청은 이번 명절인사 현수막에 대해 ‘관례’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않기로 했다.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내건 현수막에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부담됐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도 전해진다. 또 정치인도 자신이라는 상품을 알리는 광고를 한 것인데 일반 상품의 광고한 민간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음주 교통사고 어린이 피해 심각

5년간 광주 189·전남 260건...전국 16개 시·도 상위권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현황’(2012~2016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5954건으로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4.37%인 260건(사망 3명·부상 390명)이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강원(5.10%)에 이어 2위다.
광주는 전체 음주교통사고 4776건 중 3.96%인 189건(부상 277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370건이다. 단순 발생 건수로는 보면 경기도가 1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9위·5위를 기록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 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가인 기념품!!

■ 자격조건

| 상품구분 | 자격기준 |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
|-----------|----------------------------|-----------------|
| 체크카드 |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
| 대출 | 신규실행 고객 (공제리판 및 예외금발판내 제외) | 실행시 |
| 정기예금 및 적금 | 신규가입 고객 | 당일 1건에 한함 |
| 출자 적립 | 10만원 이상 입금시 | 최초 1회 |
| 생명공제 | 신규가입 고객 |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
| 손해공제 | 신규가입 고객 | |
| 급여/가맹점 | 신규연결 고객 | |
| 스마트뱅킹 | 신규가입 고객 | |
| 스마트알림 | 신규가입 고객 | |
| 상상뱅크 | 신규가입 고객 | |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